

대기업 협력업체 67% “3분기 경영 악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30개사 실태조사

동반성장 여건 나빠져...72% “대기업 파업 부적절”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동반성장 여건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6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광주·전남지역 대기업협력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업체 130개사 중 자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쁨+다소 나쁨)고 응답한 비율이 67.4%로 전분기 55.4%보다 크게 상승했다. ‘좋다’(다소 좋음, 매우 좋음)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전분기(7.7%)보다 감소(1.5%포인트)것으로 지역경제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원사업자 거래와 동반성장여건도 악화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서는 ‘나쁘다’(매우 나쁨+다소 나쁨)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전분기 44.6%보다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좋다’(다소 좋음+매우 좋음)는 응답은 10.0%로 전분기 20.0%보다 10.0%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 전기·전자업종 등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의 낮은 납품단가와 납품물량 감소 등 동반성장 여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자사제품의 단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의 ‘부정적’(매우 부적당+다소 부적당)인 응답 비율이 전분기 62.3%에서 66.9%로 증가한 반면, ‘긍정적’(적정+매우 적정)인 응답은 37.7%에서 33.1%로 감소돼 납품단가에 대해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여건의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으로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41.6%), ‘납품물량 보장’(32.3%), ‘중소기업을 협력파트너로 인식’(19.7%), ‘공정거래 준수’(3.4%), ‘경영지원 및 기타’(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 대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 확대’(24.8%), ‘지역산업 다변화 및 신규 대기업 유치 확대’(19.3%), ‘지역 내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18.9%),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17.2%),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16.4%), ‘현장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 강화’(2.9%)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72.3%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매우 부적절’(28.5%), ‘부적절’(43.8%)로 답해 대기업의 노조 파업에 대해 중소기업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3분기는 현대·기아차 파업 등 완성차업체 파업 등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 및 동반성장 여건이 모두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이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떠넘겨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3.00 (-1.86)	↑ 금리 (국고채 3년) 1.32% (+0.04)
↓ 코스닥 685.44 (-0.44)	↑ 환율 (USD) 1113.70원 (+5.90)



쌍용차 ‘세일 페스타’ 할인금 확대

코란도 투리스모·티볼리 등...어메이징 케어도 계속

쌍용자동차가 구입부터 관리, 재구매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어메이징 케어 프로그램’을 계속한다. 또 ‘코리아세일 페스타(KSF)’를 기념, 차종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구매혜택도 강화한다.

쌍용차는 10월에도 차종별로 사고 및 품질 불만족 시 신차 교환 등 신차 구입부터 이용 및 재구매까지 종합적으로 혜택을 주는 ‘어메이징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블랙박스 증정, 초저리할부 등 고객맞춤형 판촉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고 5일 밝혔다.

어메이징 케어 프로그램은 ▲구입 시 개소세 5% 지원 ▲출고 후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동일사양 신차 교환 ▲1년 이내 차대차 사고발생 시 신차교환 ▲5년·10만km 동급 최대 무상보증 ▲향후 5년 내 재구입 시 최대 100만원 더블로 열티 혜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렉스턴 W 및 코란도 C를 구입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KSF 개최를 기념해 오는 9일까지 선착순 1000명의 고객에게 재고한정으

로 5~10%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17일까지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정상할부로 구입할 경우 코란도 투리스모는 70만원,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는 30만원, 코란도 스포츠는 5년/10만km 무상보증과 20만원의 지원금액 확대 혜택을 부여한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코란도 투리스모 전 구매고객에게 차체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 기간을 동급 최대 5년·10km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이벤트를 지속 운영한다.

쌍용차는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 코란도 스포츠 구입 고객이 할부기간(6~48개월)과 유예율(0~80%)을 직접 결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My Style Edge할부부 전수술 제로 36~72개월의 세이프티 저리할부를 운영한다.

세이프티 저리할부 이용 때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하며 코란도 C와 렉스턴 W는 전수술 제로 1.9% 초저리할부도 운영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세관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4일 광주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에서 광주본부세관 공무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본부세관장은 “공직자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과거 관행에 의해 용인되었던 국 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광통신업체 동남아 수출 저변 확대

광산업진흥회 수출상담회 성과...50건 상담·335만달러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의 활발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 광통신업체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대전 지역 광산업체인 선일광통신 등 13개 기업이 참가한 동남아시아 수출상담회에서 광통신, LED조명 및 광의류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해외 진출 마케팅 활동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동

남아시아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추진해 온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참가를 통해 보유한 바이어와 해외 바이어 발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신규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과의 상담으로 총 50건, 120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선일텔레콤은 필리핀 Cynergie사와 광분배함 100만달러, 글로벌광통신은 필리핀 ECM사와 광케이블 2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진성월드라이팅은 베트남 Jin

Lighting사와 가로등 및 보안등 200만불, 선일텔레콤은 베트남 HD Development사와 광분배함 15만달러 등 수출계약을 체결해 2개 지역에서 총 335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수출상담회 기간 중 샘플 제공과 단가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20일 광주 광산업 로드쇼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링크유티스와 베트남 Construction company사와 피부치르가 50만달러, 글로벌광통신과 미얀마 Globalnet사와 광케이블 100만달러의 추가 계약도 성사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고속, 직행 승무사원 모집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업계 최고 기업가치 창출에 동참할 직행 승무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버스운전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하고, 버스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금호고속 홈페이지(http://www.kumhobuslines.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추가로 3개월 이내 받은 교통안전공단급의 운전정밀검사 결과 및 특별 검사 종합판정표, 운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일부터 27일까지이다. 문의 062-360-8106.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익산국토청,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황현성)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국도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1000여건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수막과 간판, 노점 등 국도변 불법 시설물은 그동안 국도의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주국토사무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단속과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해 ‘국도변 불법시설물 제로의 해’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는 도로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함께할수록 기쁨은 더 커집니다. 더불어 살아갈수록 행복도 더 커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가 웃음 짓는 따뜻한 세상을 K-water가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K-water'로 불러주세요

다목적 댐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며 수력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K-water는 다목적댐 19개 등에서 나오는 발전, 용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모아 댐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의료봉사

미래를 키우는 꿈나무 교육

효 나눔 복지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지원